

부처님 자비, 인연 있고 없고 가리지 않아

그대는 지금 보리심을 배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 마음을 일으켜 부처를 배워 얻으려고 한다. 그렇게 부처가 되려고 애쓴다면, 삼아승지 곱을 닦는다 해도 다만 보신불이나 화신불만 얻을 뿐이다. 그것은 그대의 본원진성(本源眞性)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밖으로 구하는 상(相)이 있는 부처는 그대와는 닿지 않았다.'고 하였다."

법신은 그대로 완전해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그런데 '발보리심'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일으켜 따로 부처를 배워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머리에 머리를 더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진정한 공부인은 이런 대목에서 하심하고 무위법으로 공부를 전환한다. 본원진성을 믿는다면, 공부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된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정작 본인은 속으로 뿌리 깊은 미세한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다.

II. 수은의 비유

배후가 물었다.
"본래 이미 부처라면, 어찌하여 사생육도(四生六道)의 갖가지 모양이 서로 같지 않습니까?"

사생이란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태생·난생·습생·화생으로 나누는 것이다. 인간은 태생이고, 천인은 화생이다. 새는 난생이고, 벌레 가운데는 습생이 많다. 육도는 업에 따라 윤회하는 것으로 천상·인간·아수라·축생·아귀·지옥의 여섯 가지 길이다.

선사께서 대답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본체는 원만하여, 더 늘거나 줄어들이지 않는다. 육도를 따라 흐르면서도 곳곳에서 두루 원만하고, 만물 가운데 날날이 부처다."

드러난 모양이 가지가지 변화더라도, 불성은 혼돈된 적이 없다. 늘 여여부동해서 뚜렷한데, 다만 중생이 스스로 놓치고 정신없이 어리석은데 빠져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윤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더라도, 스스로 불법을 만나서 근본을 눈뜰 수 있는 인연을 살피서 바른 모습을 쓴다면, 언제든 본원진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모양(相)으로는 천차만별로 벌어지더라도, 그 낱알의 바탕(性)은 오직 하나로 불생불멸이며 부중불감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한 덩어리의 수은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도, 방울방울이 모두 둥근 것과 같다. 나뉘지 않았을 때에도 한 덩어리였을 뿐이다. 이것이 일즉일체(一卽一切)이고 일체즉일(一切卽一)이다.

수은은 뭉치나 흩어지나, 잡스러운 것이 섞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6)



범이사 주지

- ▶ 만법이 다 합쳐도
- ▶ 다만 하나의 둥근 원이고,
- ▶ 모조리 흩어져도 각각이
- ▶ 다만 하나의 원이다
- ▶ 천차만별 변하는 것은
- ▶ 인연 따라 겉모양 변하는 것
- ▶ 성품은 변한 적이 없다
- ▶ 육도 윤회 어떤 곳에 있더라도
- ▶ 불법을 만나 믿으며
- ▶ 스스로 안목을 열고
- ▶ 남에게도 전하는
- ▶ 인연을 살피며 쓴다면,
- ▶ 보람 있는 삶이다
- ▶ 부처님의 자비는
- ▶ 자비를 베푸는 주체도,
- ▶ 받는 대상도 없는
- ▶ 무연자비이기에
- ▶ 진정한 대자비가
- ▶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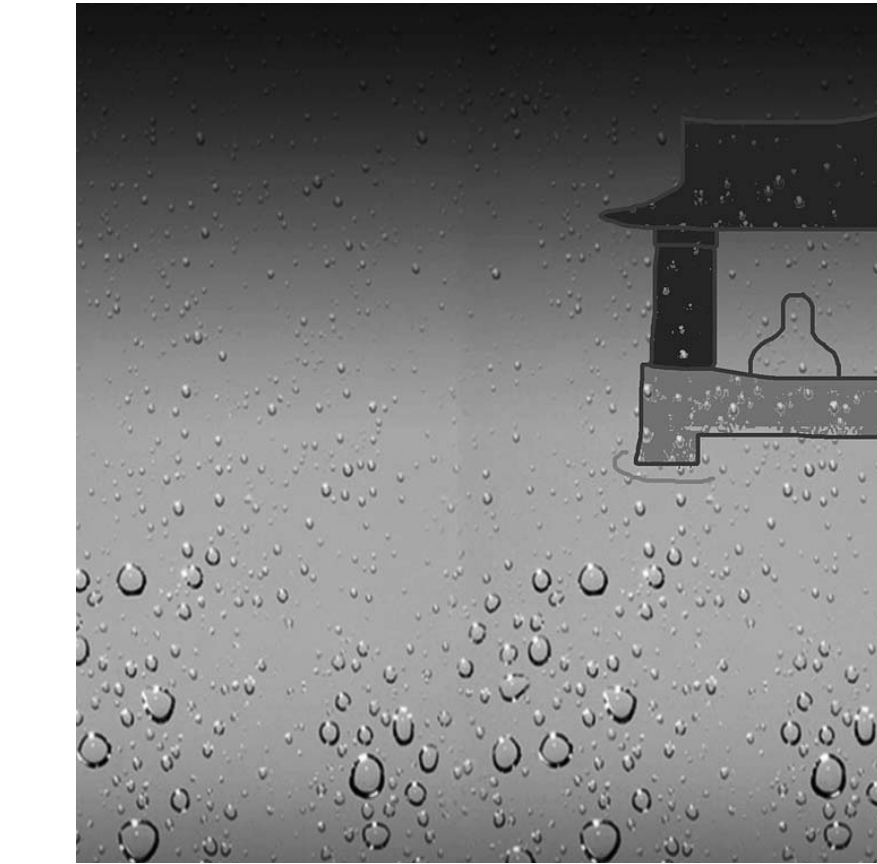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지 않아서 항상 둥근 모양을 유지한다. 만법의 본성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만법이 다 합쳐도 다만 하나의 둥근 원이고, 모조리 흩어져도 각각이 다만 하나의 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대양 넓은 바닷물의 맛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맛볼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서울 같으면 가장 가까운 인천 앞바다에 나가서 손가락으로 짚어 맛보면, 그 일미(一味)가 곧 전체 바닷물 맛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들이 다만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만 자기 마음 하나에 묵묵히 계합하면, 온 우주의 비밀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한 마음뿐이지, 이 마음 저 마음이 없다. 따라서 일즉일체 일체즉일이 되면, 화엄의 사사무에 도리가 터득되는 것이다.

온갖 형상과 모습은 비유하면 마치 집과 같다. 나귀의 집을 버리고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버리고 하늘의 몸이 되기도 한다.

천상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복이 다하면 아래로 타락하는 경우도 많고, 지옥은 시간이 오래가고 더디지만 그래도 업보가 다하면 다시 나오게 된다. 중생은 육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윤회하는 것이다. 원력 있는 사람은 지장보살처럼 화광동진(和光同塵)으로 고통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지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스님들도 인연 따라 선방에서 안거하면서 자기 공부를 잘 지어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도심 포교당을 힘들게 개척하시는 분도 있다. 시장 바닥에 살

면서도 정(定)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고요한 곳에서도 더 큰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저런 온갖 모양은 결국 인연 따라 합성된 것이다.

성문·연가·보살·부처의 집에 들어가지도 하는데, 모두 그대 자신이 취하고 버림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원의 성품에는 무슨 차별이 있었는가?"

천차만별 변하는 것은 인연 따라 겉모양이 변하는 것으로, 성품은 변한 적이 없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모양을 하더라도 더 이상 연연할 것이 못 된다. 따라서 본인과 이웃이 함께 마음을 비우고 수행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육도 윤회의 어떤 곳에 있더라도, 불법을 만나 믿으며 스스로 안목을 열고 남에게도 전하는 인연을 살피며 쓴다면, 그것이 아말로 보람 있는 삶이라 할 것이다.

12. 무연자비

배후가 물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대자비를 베푸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시니까?"
창벽선사가 대답하셨다.
"부처님의 자비란 무연(無緣)이기 때문에 대자비라고 한다."

부처님의 자비는 인연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는다. 자비를 베푸는 주체도, 자비를 받는 대상도 없는 무연자비이기에, 비로소 진정한 대자비가 되는 것이다. 인연이 있고 없고 가리지 않고 베푸는 대자비란 곧 평등한 불이법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세간 법에 따르기 위해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니라

〈열반경〉

‘외도’를 어찌할까?

외도(外道), 라는 말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정용 가진 사람들이 불륜을 범하는 것을 외도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본래 의미는,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나 사상에 대한 폄칭(貶稱)이었다. 대표적으로 초기 경전에는 ‘육사외도(六師外道)’가 등장한다. 불교 이외의 사상가, 종교가 여섯명을 한꺼번에 부를 때 이 말을 썼던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 이외의 가르침은 ‘외도’가 된다. 그러면, 불교는? ‘내도(內道)’가 되겠지. 그렇지만, 나는 아직까지 불교를 ‘내도’라고 부르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내 과문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불교 이외의 책들을 ‘외전(外典)’이라 할 때, 불교 책을 ‘내전(內典)’이라 부르기는 한다.

우리의 불교사는 외도, 외전과 어떻게 인연을 맺어왔던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외도와 의 관계정립은 하나의 숙제인 셈이다. 물론, 순수하게 불교 그 자체만을 공부하고, 닦아가면서 외도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말자는 태도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불교가 최고의 가르침인 이상, 불교 하나만 공부하면 되었지 다른 것이 무엇 때문에 더 필요한가라는 입장일 터이다.

정말 그래도 좋을까? 〈열반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신의 사원으로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저 자재신(마헤수라)에게 보였는데, 자재신이 나를 보고서는 합장하여 공경하며 한쪽으로 물러나서 서있었느니라. 나는 이미 한량없는 세월 동안 그렇게 신의 사원에 들어가는 법을 떠났으나, 세간의 법에 따르기 위하여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떠났으니, 따른다

외도의 법, 예를 들면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힌두교의 신인 자재신(自在神, Mahe?vara)을 모신 사원에 들어가서 보이는 일은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 같다. 여기서 아기를 ‘보인다’는 말은, 아기가 자재신을 참배해 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럼으로써 신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원망(願望)이 숨어 있는 것이다.

부처님 역시 그렇게 했다. 그 일에 대해서,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세삼스럽게 해석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입장

에서 볼 때 외도일 수밖에 없는 힌두교의 신을 참배해야 할 만큼, 힌두교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금생에 다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부처님께서 이미 과거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 수행을 통해서 그보다 더 높은 진리를 깨치셨던 것이다.

그렇기에 힌두교의 신에게 참배를 할 필요는 사실상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힌두교의 자재신을 모시는 사원에 참배를 하였다. 그 이유는? “세간의 법에 수순(隨順)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불교의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닐까.

불교는 다른 문화와 접촉할 때, 그 선행 때, 불교 책을 ‘내전(內典)’이라 부르기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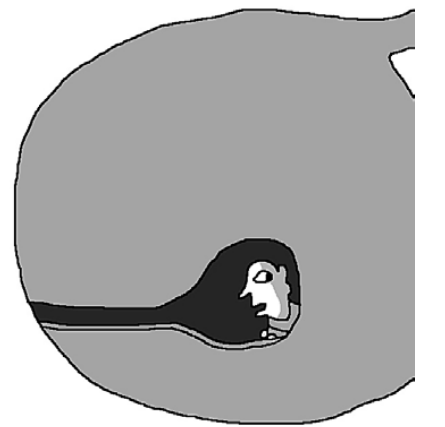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하는 문화를 깨부수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불교를 넓혀 갔던 것이다. 중국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일본에서든 다 그랬다.

왜 그랬을까? 그 선행하는 문화, 즉 외도 역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그 의미는? 바로 최고의 진리는 아닐지라도, 세간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의미있는 진리(세간의 법, 속제)이기 때문이다. 세간의 법을 버리고, 그 보다는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간의 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태도가 바로 불교의 ‘중도(中道)’일 것이다.

〈열반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물어보고 싶다. 혹시 우리는 불법의 진리 다음에, 그 높이에 젖어서 세간의 법을 무시하거나 배척해 온 일은 없었는가? 세간의 법을, 다만 세간의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지는 말자.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흥 산 현 불

총무원장 원 각

입 증 안 내

1) 입증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증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산 47-4번지 수도사
전화 041)531-3792 / 팩스 041)544-1080

◆ 불기 2557년 하계 종도 연수 교육 및 포살 대법회에 동참하신 종도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8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중정)